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6호 [루게 제24519호] 주제 103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한 전체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15일 각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으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담은 군중들의 물결이 끊이지 끊이지 흘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어 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진선 평양지구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 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곳곳에 모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도 다함없는 경모의 꽃물결이 흘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영생하시는 수령 김일성각하의 탄생일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그리고 친근한 각하의 온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드라운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알아사드

2014년 4월 14일

다마스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평양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을 맞으며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과, 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5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세출의 위인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명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생히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호의의 정이 어릴 혼창보존심들과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어버이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의 리를 다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적십자 국제위원회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적십자 국제위원회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14일 무관단 단장인 하만 케자 히예이니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단 인민무력부장 장정남동지에게,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대표단 단장 카리 유하니 이소마와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단장 데리 아르만 므나트싸까냐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에서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라몬 히메네스 로씨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세이 크 라피를 이슬람 바블루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알하산 뎀 멘 무함마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선물을 드리었다.

연구보급협력대표단의 공동명의로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에서 선물이 보내어왔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조직 위원장과 네팔자력갱생연구회 대표단, 이말리아주체사상연구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었다.

선물들이 1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울라지미르 쇠호브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 사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봄날의 꽃들이 향기롭기며 활짝 피어나는 뜻깊은 4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평양에 모여 김정은각하의 사랑과 은정을 몸가까지 느끼면서 김일성주체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를 의의있게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시대입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일성주체와 김정일총서주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이며 오늘 세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입니다. 세계인민들의 투쟁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멀망의 길을 걷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최후의 철추를 내리시는 반제반미투쟁의 기치이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걸고 싸우는 세계인민들의 모범으로 되고계십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에는 핵무력으로 대담하시어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수호하고계십니다.

자주성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모습은 세계의 자주력량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시대의 기본흐름을 밝혀주고있습니다.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총서사상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길을 가리켜 주시였으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은 김정은각하에 의해 계승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김정은각하의 자애로운 모습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으며 각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은 가슴을 울리는 수많은 일화들을 남기고있습니다.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이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있는것도 김정은각하와 조선인민들의 늑대가 얼마나 강한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들과 같은 세기를 살며 자기 나라와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조선인민과 굳게 련대하며 세계인민들속에 김정은각하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 《김정은저작집》을 발행하는 등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자기 나라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저희들은 전세계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부디 안녕하시고 건강하시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해주고 이끌어주시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일동

2014년 4월 14일

평양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축복하는 4월의 축포성 수도 평양에서 래양절경축축포발사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경축하여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이날 저녁 주체사상탑이 솟아 있는 대동강반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언덕, 옥류교 등 수도의 곳곳은 걱정과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중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록해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도 축포가 발사될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20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포가 하늘높이 터져올라 태양절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태양민족의 대통령님의 날, 대경사의 날을 만대에 빛내 가려는 듯 축포성은 천지를 진감하고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축포는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쳐 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민족과 전세계가 우리려 받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넘쳐흐르는 4월의 하늘가에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영생축원의 마음을 담아 갖가지 색깔의 불보라, 꽃보라가 신비경을 펼쳐 보였다.

《태양절을 노래 하세》, 《만경대의 노래》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황홀한 불의 세계가 펼쳐놓은 아름다운 화폭을 크나큰 걱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 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날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비범한 사상리론헌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희세의 천 출위인 이신 김일성동지를 맞이하고 높이 모시어 우리 민족은 절세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태양민족으로 존엄떨치게 되었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우리 공화국의 위용과 오늘이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임을 증시하듯 축포의 화광이 주체사상탑을 부각시키며 밝게 비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시며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령도로 김일성조선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축포가 끝없이 터져올랐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전통, 하나의 궤도를 따라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인양 충천하는 불의 세계가 경축의 밤하늘가를 붉게 물들이었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힘을 파시하듯 눈부신 축포의 화광속에 무수한 줄축포들이 앞을 다투어 뿔어오르자 군중이 터진 환호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환희와 걱정애 넘친 관람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있어 반만년민족사가 빛나고 선군조국의 미래는 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이 어려졌다.

각양각색의 고공탄들이 터쳐 울린 천갈래, 만갈래의 불꽃보라들이 울려내며 천하를 천색만색으로 찬란히 물들이고 무수한 줄축포들이 곧바로, 교차로 치솟아오르며 불의 폭포가 되어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무궁번영할 선군조선의 미래를 축복해주며 밤하늘가에 뿌려지는 오색명동한 불꽃보라들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전진시켜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려었다.

주체사상탑 봉화우에서 흰색의 굵은 불줄기가 터지며 누리를 밝게 비치고 은빛물결우에서는 춤추는 분수가 축포의 화광과 붉고 푸른 조명속에 회한한 기교를 펼쳐었다.

서로 각이한 방향으로 물줄기들이 솟구치며 아름다운 꽃다발들이 엮여지고 칠색명동한 무지개가 펼쳐졌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수놓는듯 갖가지 구슬같은 불꽃들도 드넓은 상공에 련속 꽃구름을 피워올렸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날에 날마다 선경으로 전변되는 조국의 현실, 꽃피는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는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의 선율은 군중들로 하여금 인민의 희망과 꿈이 꽃피는 나의 조국, 위대한 선군조선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더해주었다.

하늘땅을 밝게 물들이는 형형색색의 경축의 불보라들에 심취되어 눈길을 떼지 못하는 군중들과 환희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싶어 사진으로 남기는 청춘남녀들, 밤하늘가에 펼쳐진 황홀한 꽃구름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들...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불보라, 꽃보라가 펼쳐지는 밤하늘가에 《조국찬가》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며 경축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었다.

천만군민을 애국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제2의 애국가의 품만한 울림속에 창공높이 솟구쳐오른 축포탄들이 화광을 뿌리며 불폭포가 되어 쏟아져내렸다.

천변만화하는 불의 황홀경에 매혹되어 연해연방 환성을 터치는 관중들의 가슴가슴은 이처럼 장쾌하고 훌륭한 축포야경으로 태양절의 기쁨을 더해준 어머니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설레이었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로 폭풍쳐내달리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어린듯 불꽃들이 박동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기백있고 면서도 담차게 하늘을 제치고 축포의 퇴성, 불꽃이 터질 때마다 신비로운 음향이 팽활한 미래를 부르는 봄우뢰가 되어 울려 퍼졌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가 말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최상최대의 국력임을 만방에 파시하듯 축포들이 련속 터져올라 밝은 빛을 뿌리었다.

4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영웅적진군길에 산악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수놓는듯 천변만화의 황홀경을 펼친 환희의 불보라 분사기자 찍음

